



회사소개



석유개발부터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까지, 혁신에 혁신을 거듭

SK이노베이션은 유전개발부터 직접운영, 투자, 가스생산/수송/LNG, 매각까지 다양한 사업모델을 성공시키며 국내 석유개발 사업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꾸어왔습니다. 2013년 말, 15개국 22개 광구, 4개 LNG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6억 2,000만배럴의 지분 원유를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분야 및 CCU^{*1} 기술 개발 등에서 성과를 올리며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 수준의 Technology Leadership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 CCU(Carbon Conversion & Utilization):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재생산 하는 기술



최고 수준의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석유시장 주도

SK에너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제품 정제능력과 국내 석유제품 시장 점유율 1위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하루 84만배럴의 원유처리 능력과 Operational Excellence를 통해 50여 종의 다양한 원유를 처리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석유제품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 중 5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컨설팅업체인 Solomon사의 2012년 Study 결과, SK에너지는 아태지역 71개 Refinery 중 경쟁력이 2위인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Business Sustainability를 제고하고, 글로벌 석유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기초원료에서 첨단소재까지, 세계 속의 종합화학기업으로 성장

SK종합화학은 자동차, 전자, 통신의 첨단 소재에서 생활용품에 이르는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기술 축적을 통해 국내 화학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미래 수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능성 화학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등에 판매거점을 확보하여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빠른 실행력으로 세계 윤활기유 산업 주도

SK루브리컨츠는 윤활유 사업의 대표브랜드 ZIC™와 기유 사업의 YUBASE™를 통해 국내 윤활유 시장 및 고급 기유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본원적 경쟁력 제고, Biz. Portfolio강화, Management Infra 수준 제고를 통해 수익 및 판매물량 최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시장의 고급 윤활유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연간 6만톤 생산 규모의 현지 윤활유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동서남아 판매 물량 증대 및 OEM 확대를 통하여 마케팅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SK 인천석유화학

고품질 친환경 제품 생산 노력을 통해 석유화학 사업의 미래 개척

SK인천석유화학은 2013년 SK에너지의 인천CLX를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어 하루 27만배럴의 원유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휘발유, 등경유, 벙커씨유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프타를 촉매개질공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인 아로마틱 용제를 생산·판매하여 수익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져왔습니다. 현재 PX(파라자일렌)의 생산을 위한 1조 6천억원의 생산 설비 증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 이후 연간 130만톤의 PX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SK 인천석유화학은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품질 고급화와 친환경 제품생산을 목표로 생산 설비 개선, 정제공정의 정밀화 및 선진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고, 생산효율 극대화, 운영·물류시스템 개선, 구매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여 더 큰 시너지 창출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2013년 SK에너지의 트레이딩 사업부를 인적 분할하여 독립된 회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소요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조달,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수출,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50% 이상을 수출해온 SK에너지의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 모델을 확대·진화시킴으로써 세계 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트레이딩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으며, SK에너지의 Feedstock 확보 및 석유제품 수출시장 확대에도 주력중입니다.

